

일주문



체육훈장 기린장 받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다 스님은 8월 29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기린장을 받았다.



강원불교연합회장에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9월 8일 양양군 낙산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강원불교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강원불교연합회장에 선출됐다.



황룡사 대웅보전 상량식
인천 황룡사 주지 무원 스님(전태종 사회부장)은 9월 22일 오전 11시 대웅보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032)567-2533



성북구민 걷기 대회 열어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9월 19일 북한산정릉유원지에서 북한산공원관리공단을 경유하는 성북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02)927-1232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로
조계종 前 사회부장 미산 스님이 2004학년도 2학기부터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국제포교와 비교종교학 과목을 담당한다.



교구합창단 워크숍 개최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최성 정사는 9월 16-17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교구합창단 워크숍을 개최한다. (02)913-07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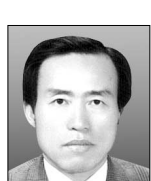
부평에 다도문화원 개원
인천 안산선원 주지 정암 스님은 9월 16일 오후 1시 부평구 부평동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다도문화원 '풍경소리' 개원식을 개최한다. (032)515-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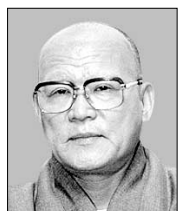
동북아 평화포럼 및 출판기념회
국제평화지도자연합 상인이사 겸 인천지회장 성민 스님(인천 보명사 주지)은 9월 15일 오후 5시 송도비치호텔에서 동북아 평화포럼 및 출판기념회를 연다.



무의탁 노인위안 잔치 마련
광주 서부경찰서불교회 김창배 회장은 9월 18일 광주 갤러리아에서 추석맞이 무의탁 노인위안 위한 위안잔치를 개최한다.



'김주본 교통문화연구소' 후원법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김주본 회장은 9월 17일 오전 11시 대구 보현사 2층 법당에서 '김주본 교통문화연구소 개소를 위한 후원법회'를 거행한다.



도업 스님 동국대 경주 정각원장 취임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환교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교수 도업 스님(사진)이 9월 8일 제8대 정각원장에 취임했다. 조

“역사적 불사에 사명감 커”

신계사 대웅전 복원 도목수 최현규 씨

“11월 19일이면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대웅전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조계종이 남북 불교교류의 한 획을 긋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맡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도목수(樵木手, 우두머리 목수) 최현규(48, 문화재 수리기능사 제1521호·사진)씨.

9월 6일 찾은 경기도 여주 최씨의 공방(工房)은 신계사로 보내질 각종 목재와 장엄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들보로 올려질 10m 길이의

3x 짜리 목재 2개와 300개 가 넘는 서까래, 코끼리 코 모양을 하고 있는 용인 '상비룡像鼻龍' 등 공방에서 가공되고 다듬어진 장엄물들은 9월 16일 금강산으로 옮겨져 현지에서 조립될 예정이다.

“대웅전 복원은 기둥과 장엄물을 조립한 뒤 지붕과 기와를 올리고 단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하는 최씨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찰 불사 경험을 바탕으로 복원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최씨는 1984년 여주 신복사 심검당 중창 공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총 30여 차례에 걸쳐 사찰 관련 사업을 도맡아 온 베테랑이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현지에서 초석 기초공사를 하고 돌아온 최씨는 “신계사 복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는 날 금강산에서 불자들이 함께 통일을 기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시민과 함께 문화 호흡”

예술축제 '팜' 연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즉흥음악’이란 장르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불교계도 문화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교문화가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9월 4-5일 ‘즉흥 놀이마당’ 예술 축제 팜(FAM, Folk And Modern)을 개최한 조계사 주지 원담(사진) 스님은 주지 취임식 달만에 처음 가진 예술축제 팜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불교문화가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문화코드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전통음악, 연불, 서양 고전 음악과 재즈, 교회 성악 등이 만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즉흥음악과 한국 전통의 신명 문화는 맥을 같이 한다는 원담 스님. 스님은 ‘느낌의 예술’인 이들 문화의 만남을 통해 불교문화를 적극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원담 스님은 특히 이번 축제를 계기로 조계사를 문화중심 도량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계사 인근 지역을 문화벨트로 묶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기적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상설화할 방침이다.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상징입니다. 또 서울지역 불교의 심장입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쉼터입니다. 이 부분에 모든 사업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원담 스님은 이 같은 생각을 오는 10월초에 발표할 ‘조계사 중창불사 4개년 계획’에 담았다. ‘조계사문화사업관’ 신축, ‘재가불자 총림’으로서 조계사 수행원 위상정립, 자원봉사단 발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스님은 이와 함께 수행, 교육, 쉼터 공간을 분리하는 도량 정비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북한산 지킴이” 해주 스님 입적

의정부 회룡사 회주이자 자비장학회 이사장인 해주(慧珠) 스님(사진)이 9월 4일 새벽 회룡사 선방 치선당에서 입적했다. 세수 80세. 법랍 46년. 스님의 영결식은 6일 회룡사에서 봉행됐다.

1925년 출생한 스님은 62년 도준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66년 비구니계를 수지했으며 제방선원에서 오랫동안 정진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불타버린 회룡사를 중창했으며, 자비회관, 자비유치원, 자비장학회 등을 설립했다. 스님은 입적하기 2년 전부터 북한산 관동도로를 막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는 말을 자주해 왔다.



남동우 기자

법상종 종도연수교육



법상종(종무원장 해월)은 9월 1-3일 안산 대신사에서 ‘불기 2548년 종도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교육원장 무성 스님의 ‘현대사회와 선불교’ 강의를 비롯해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유식학’, 중앙종회 의장 도명 스님의 ‘기신론’ 강의 등으로 2박 3일간 진행됐다.

본원종 하반기 종도연수



본원종(종무원장 대화)은 9월 9일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8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종도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원(원장 동광)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동국대 불교대학 원장 보광 스님의 ‘정토교법’ 특강과 종무행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화순 만연사 범종 불사 천일기도 회향



화순 만연사주지 정과는 9월 4일 범종불사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갖고 타종식을 봉행했다. 범종각에서 열린 타종식에는 송광사방장 보성 스님, 이영남 화순 군수, 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정과 스님은 “오랜동안 굶주린 만연산 범종소리가 다시 울리게 되어 화순이 부처님세상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총회, 소장품 전시회



충남지방경총회 불교회(회장 안중식은)는 9월 6-8일 청내 직원회관에서 ‘가을맞이 개인회원 소장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경승실장 장국 스님(갑사 주지), 송인동 회장, 충남도청 불자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전시회에서는 초의선사의 휘호 등 총 56점이 선보였다.

차문화회, 규방다례 전수관 현판식



(사)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9월 4일 부산지부(지부장 최영숙) 교육장에서 ‘규방다례 전수관 현판식 및 제7기 차예절 지도사별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규방다례보존회 최소연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02)701-0475

Advertisement for Daegaram (大伽藍) audio equipment. Text includes: "도량이 건립됨은 이 땅을 불국토로 정업하는 절경이며, 그 곳에서 무량중생들이 다겁에 쌓은 번뇌와 망상과 업장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도(大道)를 얻는 갖가지 수행문(修行門)을 열어 정각(正覺)의 절정에 오를 수 있을 것이며, 무진한 설법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법륜이 구르는 계가 마련 일 것이다." Features images of speakers and a list of benefits.

Advertisement for Yadanbopsa (야단법석) audio equipment. Text includes: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and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회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Features images of various audio components.

Large advertisement for Haedongyonggongsa (해동용공사). Text includes: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and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emple complex and a list of services: "대형 주차장 완비", "입장료 무료", "점심공양 가능",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